

2011년 3호

# 나눔과 행복

sharing and happiness

- 02 | 나눔과행복병원 소개
- 03 | 병원장 인사말
- 04 | 미션빌딩 과정 및 소감
- 08 | 연혁, 외부활동, 교육참여 실습, 기관방문
- 10 | 직원전체 행사, 등반대회
- 12 | 실습생의 글
- 14 | 2011년 상반기 재활팀 세미나 참여 후기
- 16 | 위캔클럽 현황 및 바자회 관련 내용기사
- 18 | 프롤로그 현황 및 바리스타 대회 관련 내용
- 20 | 법인 및 시설 후원, 자원봉사자 등 안내
- 22 | 가수 김태우 나눔과행복병원 방문
- 23 | 가족 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모임

2006년 서은경 作

통합재활치료중심  
나눔과행복병원

# 나눔과행복병원 소개



## ● 병원이념(Philosophy)



## ● 병원층별 이름 및 용도소개

| 옥상   | 산책 및 휴게공간                                 |
|------|-------------------------------------------|
| 6F   | 행복병동 회복기 재활치료 병동                          |
| 5F   | (2개층) 5F 병실<br>6F 시청각교육실/ 헬스장/ 재활치료 프로그램실 |
| 4F   | 나눔병동 정신중 급성기 치료병동                         |
| 3F   | 희망병동 알코올 전문치료 병동                          |
| 2F   | 낮병원, 위캔클럽 주간재활치료센터 및 직업재활센터(위캔클럽)         |
| 1F   | 외래진료실 / 원무과 / 약국 / 프롤로그(커피전문점, 매점)        |
| - 1F | 식당 / 영양과 / 주차타워 입구                        |
| - 2F | 강당                                        |

## ● 의료진 소개



### 서 영 수

정신과전문의 / 의학박사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  
한국정신분석학회 정회원(한국정신분석학회 심층 수련과정 이수)  
2008-2009 미국컬럼비아 대학교 정신과학 교실 정신재활치료 연수과정 이수  
2006.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만성정신질환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  
2006. 부산광역시장 표창(지역사회정신보건유공자 표창)  
전 동래병원 진료부원장



### 하 태 민

정신과전문의  
알코올 치료센터장  
중독정신의학회 평생회원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전 동래병원 알코올 치료센터장  
전 세명병원 진료부장



### 정 성 수

정신과전문의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중독정신의학회 평생회원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전 동래병원 알코올 병동과장  
전 해운대 알코올 상담센터 축탁의

## ● 나눔과행복병원의 핵심가치(Values)



**Excellence** 최고(전문성) 지향  
**Customer Oriented** 고객중심  
**Reliability & Respect** 신뢰와 존중(치료진-환자/치료진-치료진/원장-직원)  
**Ownership** 주인 의식  
**Co-prosperity**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이바지(병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상생)

# 병원장 인사말

서영수

정신과전문의  
나눔과행복병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 9월5일 개원식과 함께 꿈을 안고 출범한 나눔과행복병원이 어느새 진료를 시작한지 곧 두 돌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입원진료, 외래진료는 물론이고 낮병원 및 직업재활 센터를 포함한 재활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제1회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서 2등으로 당선되는 성과를 올렸고, 2010년도 부산시 우수정신 보건사업 수상을 비롯한 많은 수상을 하였고, 춘추계 학술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 및 교육모임에서 발표를 통한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부산시내 의과대학 두 곳을 비롯한 간호대학, 정신보건간호사 수련, 정신 보건 관련 간호 및 사회복지 대학원 등 현재까지 9개 기관으로 부터 공식적인 학생실습 요청을 받아 실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WHO협력 기관 및 한국정신 사회 재활협회에서 주관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FUK: Family Link Korea)의 부울경지역 거점병원으로 선정 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실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결실을 맺은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나눔과행복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 달려온 결과이고, 또한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곁에 계신 덕분입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나눔과행복 직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한해를 열어 갈까 고민하던 중에 “그동안 너무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 큰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면, 올 한해는 한숨 돌리며 주변도 좀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 가며 내적성장과 공감의 힘을 키우고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질적성장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보자”는 말로 한 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월 첫 월례회 때, KBS 감동 대상 을 수상하며 전 국민을 감동시켰던故 이태석 신부님의 울지마 돈즈’를 상영하고 감동을 나누는 것으로 올해의 직원교육을 시작 했더랬습니다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라는 목표는 참으로 중요 하면서도 모호하고 과연 어떤 작업부터 해나가야 할지 큰 고민을 안겨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살아 오면서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첫 소식을 통해 나눔과행복병원 개원 당시로부터 현재 까지 변함없이 각별한 도움을 주고 계신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이명희 교수님과 금속공예가 진영섭 교수님 두 분께 짧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렸듯이, 돌아 보건데 늘상 주변의 좋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 하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컨설팅 전문가인 김재현 교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나눔과 행복병원의 핵심가치 하나 하나를 보다 구체화하고, 나아가 미션과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소중한 가치공유의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러한 미션과 가치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눔과행복 가족들 모두의 인격에 스며들어 실천되어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덕분에 올해 초에 세웠던 올해의 가장 큰 목표를 향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 세 사람과 팀장들과 자발적으로 동참한 팀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나눔과행복병원의 존재 이유가 되는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20 여 시간에 걸친 고민과 소통을 통해 마침내 미션문이 만들어졌을 때 의 진한 감동은 비단 저만의 감동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아침마다 읽어 볼 때면 가슴 뛰는 설레임을 느끼며 미소짓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향기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참 나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고 준비된 사람이 많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그러고자 노력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비로소 뜻한 바대로 좋은 방향의 발전을 개인과 조직이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지금까지 받은 좋은 향기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를 스스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순익이 최대일 때 행복한 병원이 결코 아닙니다. 나눔과행복의 미션과 핵심가치 아래 우리의 바람과 하고자는 꿈을 제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고, 힘들지만 행복한 한걸음 한걸음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병원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목적과 철학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나눔과행복의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향후 나눔과행복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동참하여 끝까지 남아 공동의 꿈을 이루고자 나날이 진화를 모색해 가는 병원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와 같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의 변함없는 노력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나눔과행복병원 「미션빌딩 프로젝트」



### ● 「미션빌딩 프로젝트」를 회상하며...

지난 4월 우연히 나눔과행복과 인연을 맺게 된 김재현(아낌없이 주는 나무 기획이사, 인제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외래교수)교수와 나눔과행복병원 원장님들의 협의(?)에 의해 미션빌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4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함께 참여하면서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시간 일과를 마친 후 함께 모여 미션빌딩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열띤 토론을 경험하였고 최종 미션을 만들어 내는 순간 가슴 뛰는 행복감을 맛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 합니다. 모두의 가슴속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는 그날까지 !!! 함께 합니다.

홍보팀 / 이미경

### 「미션빌딩 프로젝트」를 통한 나눔과행복 핵심가치 정의



미션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비전 Vision 2015 부산의 정신과 No.1 나눔과행복병원

#### 〈나눔과행복 핵심가치〉정의

##### 고객중심 |

나눔과행복을 찾는 모든 분들을 내 가족같이 대하며 그들의 내적 성장과 행복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

1. 우리의 고객은 나눔과행복을 찾는 분
2. 고객입장에서 생각하기
3. 공감하기
4. 치료적 목적의 방향성(지키기)
5. 권위와 고정관념 벗어나기

##### 주인의식 |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내가 곧 나눔과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노력 하는 것

##### 최고지향 |

근거 중심의 차원이 다른 의뢰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도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 상호신뢰와 존중 |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것

##### 지역사회 이바지 |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보건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 하는 것

## 미션빌딩에 참여하면서 #1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김재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사  
인제대 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물고기가 살고 그곳에 얼굴 가득 만연한 미소를 띤 이들이 있다. 다름 아닌 ‘나눔과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실천 하려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4월 학교 수업상 우연찮게 방문하게 된 ‘나눔과행복병원’은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준 곳이다.

사실 “사회변화에 병원의 역할이 뭐 있겠냐!”라는 개인적인 고정 관념이 있었는데 이곳의 선생님들을 뵙는 순간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분의 원장님을 만나고 우리 사회에 정신병증으로 고통 받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에게 치료를 받는다면 “그들의 삶은 좀 더 나아지고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겠다”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그리하여 시작 된 것이 나눔과 행복의 미션빌딩 프로젝트’였다.



11명으로 구성된 TFT는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어(보통은 업무 시간 중에 진행 하는데 이곳은 정상 업무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 조직의 미래 방향성과 핵심가치를 정의하면서 그들 조직의 원칙과 철학을 만들어 갔으며, 조직의 문화를 더욱 분명하게 그려갔다.

총 4주 간 진행한 미션빌딩 프로젝트는 그 과정 자체가 함께 어울려 서로 간의 깊이 있는 내면의 가치를 표출하고 그것의 충돌과 포섭되는 합의의 과정을 거쳐 갔다. 그런와 중 서로 간의 신뢰와 정말이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변화 되어가는 스스로들의 모습에 웃고 울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워 하면서 서서히 ‘나눔과행복’의 가치를 만들어 갔다. 돌아보면 ‘나눔과행복’은 참으로 신기한 곳이다. 정신과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독특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건물 곳곳에 녹아져 있는 이곳은 병원 안에 정신 장애인들(모두가 ‘바리스타’이다)이 고용되어 그들이 직접 만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단순 치료의 목적을 뛰어넘어 그들의 재활과 스스로의 사회복귀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흔히 생각하는 정신병동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곳곳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벽면 가득한 물고기가 사람들의 맘을 편하게 해주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만남부터 사진보다 더 젊고 온화한 미소의 서영수 원장님을 뵈고 ‘나눔과 행복’의 가치를 몸서 실천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게 되었던 것이 ‘나눔과행복의 미션빌딩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제 1단계의 완성과 더불어 앞으로 세부적인 조직 방향성 (세부전략개발과 정교한 시스템 개발 및 안착이라는 과제가 있지만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튼튼한 토대가 되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정신병증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노고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아무췌록 부족하지만 끝까지 믿고 함께 해준 나눔과행복의 선생님들에게 진정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함께한 4주간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해 본다.

앞으로의 만날 날을 기약하며  
2011년 5월 비 내리는 어느 여름 날

## 미션빌딩에 참여하면서 #2

### 간호팀/ 김혜준

4주만에 걸친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핵심가치를 정의해 보고 미션문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눔과행복인이 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재현 교수님을 비롯한 미션빌딩 멤버들에게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나눔과행복이 자랑스럽습니다.!!!'

### 재활팀/ 김희진

지금껏 스스로 직장을 선택해 왔고 나름대로 만족을 느끼며 잘 다녀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이 직장의 일원이구나,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며 다녀 본 직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나눔과행복병원에 문을 두드렸을 때 의 설레임과 한편으로 드는 두려움, 걱정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고, 또 다른 희망들로 제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의 삶에 미션과 비전 목표와 전략수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주고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나눔과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행복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재활팀/ 박경덕

미션빌딩을 마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부족한 능력에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하느라 돌아 보지 못했던 다른 팀 가족들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빌딩을 하는 중에 감사하기 과제를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긍정의 힘을 넣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미션빌딩작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원들과 이 과정을 공유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나눔과행복이라는 버스에 올라타서 그 중심(?)에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재활팀 가족들과 버스의 중심을 잘 지키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헤쳐 나가며 서로 지켜주고 서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다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교수님과 인연에 정말 감사드리구요. 무엇보다 이 일을 시작해 주신 서영수 원장님, 하태민원장님, 정성수원장님 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간호팀/ 허옥임

미션빌딩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초심도 생각해보고, 나눔과행복에서의 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각 부서의 팀원들과 만나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너무 늦은 후기 작성인듯 합니다. 죄송 ~ 그 동안 팀원들과 김재현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 원장/ 하태민

전문의 시험을 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시험 이후 긴장을 했던 정도나 기간이 제일 길었던 시간 만큼이나 저에게는 소중한 하기도 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 주신 미션빌딩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짧은 글이지만 대신할까 합니다.

### 간호팀/ 이미경

미션빌딩 처음 시간을 갖고 나서는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각팀의 팀장님들의 모임에 근무가 맞다는 이유로 참석을 해도 되나.. 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4회기에 걸쳐 토의에 참여하고, 과제를 수행 하고 나서 팀원들이 만든 핵심 가치와 미션문을 읽고 있노라면.. 어쩔 저렇게 마음에 와 닿게 잘 만들었을까..

4주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너무 보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모든 직원들과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위대한 병원을 만들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

그동안 팀원들과 김재현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

### 원장/ 정성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난 다음 시작 되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추구할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명료화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즐거웠던 것은 그런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들만의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문화열린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가 나눔과행복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지금까지의 노력을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팀원과 김재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재활팀/ 곽혜정

요즘들어 왠지..  
뭔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다보니..  
이것저것 맘이 좀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네요. 미션빌딩 작업을 하면서..

이 팀의 팀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으며 이런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였는지 모릅니다.

나눔과행복의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에게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눔과행복 가족들이 모두.. 즐거운 생활이 되기를 바래어 봅니다. 처음 한시간 참여하지 못함이 많이 아쉬웠으며, 나눔과행복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

### 간호팀/ 이덕수

짧지도 그리고 길지도 않았던 우리들의 미션빌딩 작업 흐트러져졌던 내 마음 속 초심을 다시 일깨워 준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될 과제를 묵묵히? 아니 열정을 토해내며 과제를 수행에 나가시는 모습 을 보며 저도 나눔과 행복의 한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성실이 일해 나가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4주 동안 저희 미션빌딩 작업을 이끌어주신 김재현 교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팀장님 그리고 나눔과행복병원 우리팀원들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 드리며 나눔과 행복병원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 원무행정팀/ 오경진

4주간의 기간 동안 직접 부딪혀 미션을 만들고 핵심가치와 비전을 구축해 나가면서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처음 입사할 때의 열정을 잠시 내려놓고 생활했었는데 이 기간을 통해 여러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열정이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제 부티가 시작이겠죠, 버스에 탑승한 모든이들이 중도 하차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며 나눔과행복병원의 비전을 위해 화이팅 합니다.

### 원장/ 서영수

이번 미션빌딩은 우리들 나눔과행복 가족들에게 너무도 큰 의미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무 여건상 모두가 참석 할 수 없었기에 아쉽게도 각 팀을 대표한 11명이 참석했지만 마음만은 모두가 함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션빌딩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만든 미션과 핵심가치와 비전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외 시간이었음에도 매주 4시간 이상의 시간을 4주간 할애하면서 너무도 열정적으로 가까이 참여해준 분들께 특히 감사드리고, 김재현 교수님께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부터의 한걸음 한걸음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 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다행스럽게도 충분히 좋은 사람들을 나눔과행복 호에 태우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충분히 좋은 병원을 만드는 데에는 지금 으로서도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들의 미션으로 품고 있는 나눔과행복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영속하는 나눔과 행복병원이 되고자 한다면 이번 미션빌딩과 같은 시간과 그 내용이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노력이 없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나눔과행복병원 연혁

- 08년 03월 26일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설립
- 09년 07월 03일 병원개설 및 허가
- 09년 08월 03일 외래 진료 시작
- 09년 09월 05일 개원기념식
- 09년 09월 10일 사회복지시설 위캔클럽 설치 신고 필
- 10년 02월 04일 무량수노인요양원 협약체결
- 10년 02월 10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실습 협약 체결
-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실습 협약 체결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실습 협약 체결
- 08년 03월 15일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실습 협약 체결
- 09년 03월 17일 안심 노인종합 복지센터와 연계 협약 체결
- 부산 동원종합 사회복지관과 연계 협약 체결
- 10년 04월 06일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협약 체결
- 10년 08월 04일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실습 협약 체결
- 10년 08월 19일 천주의 성요한 병원과 협력 기관 체결
- 10년 09월 01일 <프로로그> 오픈(정신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2010-2호 지정
- 10년 09월 04일 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주년 기념 및 프로로그 오픈식
- 10년 09월 10일 <프로로그>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약식
- 10년 10월 25일 1사 1사회적기업 협약식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 10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우수 정신보건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 11년 02월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Family Link Korea)
- 부산지역 거점기관 지정
- 11년 03월 05일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실습 협약 체결
- 11년 03월 29일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 <위캔클럽>
- 11년 04월 10일 인제대학교 대학원(정신전문간호사 과정) 실습협약체결
- 11년 05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사회공헌사업 협약체결

## ● 함께 축하해 주세요

- 2011년 상반기에 나눔과행복 가족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 2011년 2월 12일 재활팀 김희진 결혼
- 2011년 3월 27일 간호팀 박경원 결혼
- 2011년 5월 22일 간호팀 이덕수 결혼

## ● 외부강연 및 학술발표

- 10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강의
- <정신재활치료> 서영수 원장
- 10년 10월 21일 대한 정신분열병학회 추계학술대회
- <항정신병 약물치료 성과향상을 위한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활용> 서영수 원장



- 10년 10월 23일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강의  
〈정신재활치료〉 서영수 원장
- 10년 10월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마인드 풀니스와 정신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발표 - 정성수 원장
- 10년 11월 24일 부산시청자미디어 센터 주관  
〈2010 미디어 교육 사례발표회〉 지정토론 - 박경덕 재활팀장



- 10년 11월 25일 부산 지역사회정신보건관계자 워크숍  
• 네트워크구축에 관한 토론자 참여 - 박경덕 재활팀장  
• 우수 정신보건사업선정 사례발표 - 박경덕 재활팀장



- 11년 04월 26일 WHO협력기관 직업재활포럼  
•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용의 실제 발표〉 박경덕 재활팀장  
• 지정토론 1 〈변화하는 사회정책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영수 원장
- 11년 05월 07일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강의  
〈사회복지 이론 및 실천〉 박경덕 재활팀장  
〈정신보건시설 행정 사무관리〉 박경덕 재활팀장
- 11년 05월 17일 지역사회정신간호사학술 연구회(CPNS) 특강  
〈정신재활의 원리〉 서영수 원장
- 11년 05월 20일 알코올 중독 전문가 양성과정 〈동기유발〉 강의 - 하태민 원장



## ● 실습 및 기관방문

- 10년 11월~ 11년 6월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보건간호사 수련생 재활치료 실습
- 10년 2학기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병동간호 및 재활치료 실습  
부산가톨릭 대학교 간호학과 병동간호 및 재활치료 실습
- 11년 1학기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재활치료 실습
- 11년 1학기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병동간호 실습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병동간호 실습
- 11년 1학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치료 실습
- 11년 1학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치료 실습
- 11년 1학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 실습(5명)
- 11년 4월 해운대 백병원조무기사 위탁교육(5명)
- 11년 6월 20일, 21일 인제대학교 대학원 정신전문간호사 과정 정신재활치료 실습
- 11년 3월 16일 경기 이음병원 원장 3명,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7명 본원 방문
- 11년 3월 22일 부산백병원 정신과 정도운 교수 세명병원 서범주 진료부장,  
PANSS rating study 강의, 본원 재활팀과 세명병원 재활팀 대상
- 11년 3월 25일 대연성모병원 사회사업실(낮병원 준비관련) 본원 방문
- 11년 5월 11일 사하구청 문화관광과 프롤로그 견학관련 본원 방문



## 나눔과행복병원 제2회 근로자의 날

### 전 직원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등반대회를 대역해서... 「나도 한미다!」

2010년 나눔과행복병원 개원이후 처음 맞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며 제 1회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벌써 두해가 되어 두 번째 등반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날 23명의 나눔과행복을 실천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참여한 가족들의 한마디를 담아 보았습니다. 2011년 4월 30일 오후 2시 부터 어린이 대공원 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홍보팀 / 김완옥

#### 간호팀/ 허옥임

첫 번째의 등반대회의 추억을 안고 간 두 번째 등반대회... 맑은 기를 마시며 함께 행복하게 웃을 있는 시간이었고, 상품에 눈이 멀게 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다른 부서 간의 애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간호팀/ 김혜준

비가 내린 뒤 촉촉하고 상쾌한 길을 걷다 보니 그 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 간 것 같아요. 태극선의 레크리에이션도 너무 좋았구요. 자주 이런 시간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 간호팀/ 김애리

나눔과행복병원에서의 첫 등반은 날씨로 인해 등반보다는 산책의 느낌이었지만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서로를 향한 나눔의 장이 되는 시간이어서 행복했습니다.

#### 간호팀/ 김종현

평소 등반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등산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간호팀/ 최미옥

짧은 거리라 아쉬웠지만 재미 있었고 다음에는 한 4km는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간호팀/ 최민애

처음에는 비가와서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가보니 햇빛도 없고 바람이 상쾌해서 소리도 지르고 뛰어 다니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 간호팀/ 윤은경

화식자리를 통해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간호팀/ 도승민

근무하느라 등산은 참여하지 못하고 화식 자리만 참여했는데 원장님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모든 직원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간호팀/ 박금열

프로그램이 많이 참 재미 있었다며, 내년에는 날씨 좋은 5월에 가면 좋을 것 같네여

#### 간호팀/ 이미경

비가 오지 않기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등반대회 동안 비가 뚝 그쳤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이루어 진다는 말이 맞았네여 다른 부서와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적어서 안타까웠는데 등반대회가 만남의 장이되었네여



#### 재활팀/ 우리님

이전에 비해 다양해진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특히 재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전 직원이 모인 자리도 좋았습니다.

#### 재활팀/ 박경덕

등반대회라고 하기엔 좀 민망 하겠조? 우리 나눔과행복과 함께 했던 건기대회(1)가 2회째 개최되어 무척 행복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 만 해도 좋은 일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재활팀/ 김희진

전직원들이 모여 하나된 자리였습니다. 등산코스가 아니라 아쉬웠지만 새로 단장한 어린이 대공원을 걸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 꽃을 피웠던 기억이 정말 좋았습니다.



#### 재활팀/ 이정은

첫 직장 첫 등반대회라 뜻깊었습니다. 레크레이션 재미 있었는데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재활팀/ 김태균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조별 경쟁심리가 줄어들 길 바랍니다.

#### 재활팀/ 김정선

어린이 대공원 도심 속 숲을 걷는 기분으로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재활팀/ 허다운

첫 등반대회라 나름 기대했었는데 기대보다 더 재미 있었습니다. 특히 레크레이션이 너무 재미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꼴지를 해서 상품 못 한게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꼭 많은 상품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원무행정팀/ 이준우

자연의 아름다움과 젊음의 아름다움이 어울려 환상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 원무행정팀/ 최미옥

재미있는 등반대회였습니다. 내년에는 날씨가 화창해서 더 즐거운 등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0년 2학기 나눔과행복병원

### 낮병원 실습을 마치고 간/호/실/습/記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학생들의 한마디!'

#### 실습생/ 박수린

이번 나눔과행복병원에서의 실습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의미를 남긴 실습입니다. 병의 발견, 치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재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회원분들이 바깥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활동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들은 선불리 잘 달라지지 않고, 회원분들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행동 할 수 있는 능력, 큰 위기를 받아 들이고 이겨내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이를 중재하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의 '워킹클럽'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 있는 회원분들에게 그 남아 있는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사회에 적응하여 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돕는 곳 입니다. 단지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만이 아니라 그 일터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줄여주고 계속 적으로 회원분 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고 같이 해결하도록 합니다. '워킹클럽' 같은 재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어 회원 분들에게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되어 더 많은 회원 분들이 사회 속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일간 저희에게 따뜻 하게 대해주시는 원장님, 선생님들, 저희에게 먼저 관심 보여주시고 같이 웃어주시는 회원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스쳐 가는 인연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시간도 같이 나누며 행복해 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같이 나눴던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 이나마 회원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실습 이었습니다.

#### 실습생/ 이지혜

정신간호학 실습을 위해 이미 저번에 병동 실습을 했을때 왔었던 '나눔과 행복병원' 낮병원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병동 실습 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의료진 선생님들과 환자분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번 낮병원 실습도 무척 기대되는 마음을 안고 낮병원이 있는 2층으로 갔습니다. 회원분들과 선생 님들은 모두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고 즐거웠던 아침체조 후 우리는 WSM (Wellness Self Management)라는 생소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WSM은 뉴욕에서 실시 되었던 프로그램으로 현재 나눔과행복병원에서 시범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다루어졌던 주제는 건강한 영양 관리였는데 회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영양관리를 상태를 체크해 보고 계획을 세워 실천 해본 후 발표&평가하는 방식으로 주 3회 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원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 후 자신 있게 평가하고 결과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보통 지적 기능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또 영양관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편견이 깨지게 되었고 회원들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WSM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나칠 수 있는 건강자가 관리교육을 통해서 교육 하는 의료진, 교육받는 회원들 에게 모두 유익한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5일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낮병원 회원들의 순수함을 느끼고 여러 프로그램, 선생님과 마침 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실습생/ 박민형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이라 하면 저마다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입니다. 저 또한 학생간호사로써 실습 할 기회가 없었다면 저도 색안경을 낀 채 병원과 환자들을 바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곳 낮병원에 왔을 때의 활발한 분위기와 회원분들의 밝은 미소는 저의 생각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낮선이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위해 내가 작은 도움이 되고자 치료자적인 입장에서 다가간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먼저 손을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 만으로도 크나큰 힘이 된다는 것에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슴이 찡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함께한 시간속에서 많은 회원 분들이 함께 실습한 학생간호사들을 배려해주고 챙겨 주셔서 따뜻함을 한 가득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회로 한걸음 걸음 준비하고 있는 회원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저마다의 꿈을 이루며 멋지게 자내고 있는 모습을 꼭 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과 마음을 나누며 행복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실습생/ 이지나

나눔과 행복 병원에서 실습을 한 일주일동안 환경이나 분위기, 여러 프로그램, 회원 한 분 한 분, 선생님 한분 한분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WSM (Wellness self management)라는 프로그램이 매우 인상깊게 남습니다. 간략하게 이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요법들, VOD시청 등은 단면적으로 요법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WSM은 요즘 영화로 치면 '3D영화'와 같습니다. 입체적인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한 주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에 각자 수행한 내용의 평가까지 포함하는 WSM은 빠른 재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self management 기술도 익힐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에 한 번 놀랐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회원이 한 주의 WSM 주제인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직접 정보를 선택하고 계획, 수행해 온 것을 보고 아직 첫걸음이지만 다음 날의 결과가 무척 기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정신병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진정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면모를 발휘 하길 기대해 봅니다. 실습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희를 밝게 맞이 해주시고, 종일 저희와 수다 아닌 수다를 떨어가며 저희와의 시간을 즐겨 주시던 회원 분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또한 저희를 함께 일하는 동료 직장인으로써 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들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1주일 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정이 들어서 인지 아직도 그 시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회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진정한 '슈퍼맨' 이 되길 기도 하였습니다.

### 실습생/ 정효은

저는 오후 프로그램들을 회원분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자원봉사로 나오시는 교수님께서 직접 피아노를 치시면서 회원들에게 다양한 노래들을 가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에는 중,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곡들도 많아서 잊고 있었던 그 노래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지루하지 않게 노래 몇 곡 부르고 나면 중간 중간에 재미있는 인생 얘기도 해주시고 정말 분위기가 즐거웠습니다. 요가교실은 각자 매트 위에서 요가선생님을 따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동작을 따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회원들이 온몸을 스트레칭하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고 피로 또한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세계여행 프로그램은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고도 세계 각국의 나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볼거리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청했던 것은 일본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라디오 스타란 감상하고 싶은 음악들을 선곡 하여 하나씩 들어주는데 회원들이 모두 듣고 난 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를 투표를 하여 1위곡을 골랐던 회원에게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노래를 고르는 센스가 정말 좋았고 이 시간에는 편안하게 음악 감상을 하면서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감상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들을 그 날까지 수집을 하여 그것을 참고로 영화 한편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왔던 날에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시청하였는데,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간을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는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눔과행복병원의 프로그램들은 다른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저희 실습생들의 감동을 불러 일으켰고 무지 보기 좋았습니다.

## 재활팀 역량강화를 위한 '제주도 MT 및 세미나'

재활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정은



저는 삼월에(입사일이 3월이라 붙여진 별명)라는 애칭(?)을 가지고 나눔과행복병원 재활팀에 입사 한 막내 사회 복지사입니다. 지난 2월에 재활팀과 함께 했던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MT 및 세미나 체험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제주도 여행의 목적은 여행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재활팀 식구들과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과 다양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구성됨을 자랑하는 우리팀에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여 정신재활에서의 다학제간 팀 접근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자의 개념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기 위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주도로 출발 하였습니다.

여행 전날 갑작스러운 기상이변 통보를 받고 비가 오면 어쩌나~하는... 여행을 앞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된 불안감을 가지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여행이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수속부터 탑승까지, 제주도의 공기를 마신 것도, 그리고 말을 바로 눈앞에서 본 것도...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처음은 재활팀 식구들과의 첫 번째 여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렌트 한 승합차를 타고 비좁은 곳에 오밀조밀 앉아 2박을 숙박할 통나무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의 일정을 걱정하던 우리들은 제주의 맛 집을 찾아 갈치조림과 고등어조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한참 시장했던 우리들은 말도 없이 그 음식들을 흡입(?)하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이후 다음날 아침 메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결정된 박경덕 팀장님의 야심작 닭도리탕을 위해 마트로 향했고 우리는 여행에서의 첫 번째 좌절을 했습니다. "생닭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찌지? 하다가 김희진 선생님과 김태균 선생님의 심도 깊은 전략(?)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 다는 생닭을 이용하여 치킨을 만든다는 치킨가게에 들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닭 2마리만 포장해 달라며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저희에게 싯닭을 팔아주셨습니다. 닭을 구한 에피소드는 우리 팀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도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안주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즐겁게 펜션에 도착한 후 일정에 의해 박경덕 팀장님의 진행으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재활팀 팀원이 4가지의 주제로 발표를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서영수 원장님의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 정신재활 영역에서 알면 좋은 약물관리 2) 정신재활영역에서 알면 좋은 심리검사 3) 예비사회적기업의 실무 4) 직업재활 사례연구를 주제로 각 분야별 정신보건 전문요원 선생

님들께서 맡아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영수 원장님은 “재활에 있어 환자의 intake 및 outcome 평가를 위한 Database 구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팀원 모두 집중하여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만족하며 세미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정에 따라 8시에 눈을 뜨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냉동닭의 화려한 변신 “박경덕 팀장님표 닭도리탕”을 모두 맛있게 먹은 후 제주도 올레길 7코스 투어를 출발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상적인 자연경관에 취해 3시간을 걸은 후 2시간은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며 총 5시간의 올레길 7코스 투어를 하였고,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 제주별빛 누리 공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씨와 갑작스런 소나기로 인해, 별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영상물로 대신 제주도 하늘을 감상하고 숙소로 돌아와 즐거운 두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의 즐거운 시간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날 눈을 뜨니 제주도 초록빛 바다를 보아 한다면 떠났다가 돌아온 재활팀 김정선, 우리님 선생님의 경치 관광기를 들으며 아침을 먹고 “선녀와 나무꾼”에 도착하여 50년대 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실물 사이즈의 전시물을 관람 한 후 예전 드라마 ‘울인’의 촬영 장소였던 섭지코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저 멀리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섭지코지의 경관은 매우 환상적이었습니다. 섭지코지 구경을 위해 걷던 도중 바다에서 이동 중인 돌고래를 구경하였습니다. 돌고래에게 인사 한 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싱싱한 해산물들을 맛보고 부산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재활팀 MT 및 세미나 일정을 종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벌써 5개월째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제주도에서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그때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음 짓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세미나에서 함께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눔과행복병원에서 회원 분들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주제로 공부를 함으로써 나눔과행복병원 재활팀 만의 전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다음번 여행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미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지에서 새로운 여행지 기대해 주세요.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위캔클럽(WeCanClub)



위캔클럽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귀하여 살아 갈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재활 중심의 사회복귀시설입니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

|                               |                                                                                                                |
|-------------------------------|----------------------------------------------------------------------------------------------------------------|
| 취업준비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재활을 준비하는 단계</li> <li>- 취업에 대한 동기강화</li> </ul>                       |
| 지원교육<br>(Supported Educ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li> <li>- 경쟁적 환경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 제공</li> </ul>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br>네트워크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 울산 지사 연계 지원고용</li> <li>-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훈련프로그램 연계</li> </ul> |

### 직업재활

|                                |                                                                                 |
|--------------------------------|---------------------------------------------------------------------------------|
| 지원고용<br>(Supported Employ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개발</li> <li>- 취업지원</li> </ul>      |
| 사회적 기업(운영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형 예비사회적 기업 2010-2호 '프롤로그'</li> </ul> |

### 취업 후 관리

|      |                                                                                                   |
|------|---------------------------------------------------------------------------------------------------|
| 사례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유지를 위한 사례관리</li> <li>- 개인에게 적합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li> </ul> |
| 자조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회원 간 유대강화</li> <li>- 의사소통 체계 마련</li> </ul>             |
| 가족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교육</li> <li>- 가족자조 모임</li> </ul>                       |

## 위캔클럽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2010년 우수정신보건사업 선정,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2010년 11월 부산 광역시 우수정신 보건사업에 공모하여  
“정신 장애우의 세상을 향한 첫 걸음 프롤로그”로  
우수정신보건사업에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 2011년 상반기 취업현황

| 취업장        | 취업기간                | 취업회원 | 담당업무      |
|------------|---------------------|------|-----------|
| 나눔과행복병원    | 2009년 12월 ~ 현재      | 1명   | 병원 내 청소   |
| (주)대영목재    | 2010년 3월 ~ 현재       | 1명   | 단순 생산직    |
| 수예점        | 2010년 7월 ~ 현재       | 1명   | 제품판매 및 보조 |
| 프롤로그 I     | 2010년 8월 ~ 현재       | 2명   | 커피 전문점    |
|            | 2010년 8월 ~ 2011년 1월 | 1명   |           |
|            | 2011년 2월 ~ 현재       | 1명   |           |
| 프롤로그 II    | 2010년 8월 ~ 현재       | 2명   | 매점        |
|            | 2010년 8월 ~ 2011년 2월 | 1명   |           |
|            | 2011년 4월 ~ 현재       | 1명   |           |
| (주)조은잉크케미컬 | 2011년 3월 ~ 현재       | 4명   | 단순 생산직    |
|            | 2011년 3월 ~ 4월       | 2명   |           |
|            | 2011년 3월 ~ 5월       | 2명   |           |

## 위캔클럽 바자회 및 프롤로그 일일찻집

날씨가 쌀쌀했던 4월 23일 토요일 어려운 시간내어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좁은 장소에 많이 불편 하셨을 텐데 맛있게 드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일일찻 집 및 바자회 행사에는 좀 더 편안하게 음료 및 메뉴를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나눔과행복병원 가족모임 율타리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내 사업단 「프롤로그」



prologue  
나눔과행복 프롤로그

프롤로그는 정신장애인의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의 의미를 담아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에서 창업하고 2010년 부산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업체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프롤로그 I : 커피 전문점

나눔과행복병원 내 1층 로비에 커피 전문점을 개설, 운영 하고자 함. 전문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정신 질환자가 제공하는 커피를 판매함



### 프롤로그 II : 매점운영

사무용품물 비롯하여 기타 잡화 판매점. 매장 관리, 판매, 배달 등의 업무를 모두 정신질환을 가진 취약 계층이 운영하여 일자리 제공하고 편견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함.



### 프롤로그 이용 서비스 안내

간식 패키지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간식 주문 가능  
출장 카페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대학 축제 등 핸드드립, 생과일 음료 출장가능  
기념품 제작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기념품 주문 제작 및 판매 가능  
회의장소 제공 - 병원 내 프롤로그 커피점 공간 제공(PPT, 마이크 사용 가능)





## '2011 제4회 KCA 후루티 바리스타 클래식 '장애인부' 대회 동상 수상

2011년 4월 28일 한국커피 연합회가 주관하는 2011 KCA 후루티 바리스타 클래식 '장애인대회'에 프롤로그 팀이 출전하였습니다. KCA 후루티 바리스타 클래식 장애인대회는 전국에서 커피를 배우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과 예비 바리스타들에게 희망, 용기를 부여하며, 업체들에게는 활발한 인재 스카우트의 장으로, 선수들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대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바리스타들이 팀을 구성하여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아이스 카페모카, 아이스 카푸치노 메뉴를 심사위원(손님)의 주문에 따라 시연하는 방법으로 처음 대회에 참여한 프롤로그 팀은 바리스타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본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날 부상으로 최고급 커피 원두 20kg, 시럽 30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기쁨을 함께 하고자 프롤로그, 나눔과행복병원, 위캔클럽 직원 분들에게 솜씨 가득한 커피 관련메뉴를 기념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프롤로그에 많은 관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prologue  
나눔과행복 프롤로그



“나눔과행복 프롤로그, 바리스타대회 장애인부 참가하여 동상 수상”

### 김지숙

처음으로 경험해본 바리스타 대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 했던 것보다 실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더 잘해 낼 것 같습니다.

### 박경덕

웬지 모를 가슴 뿌듯함을 안고 돌아 온 날이었습니다.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프롤로그의 바리스타님들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했어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 배지은

프롤로그에 입사한지 8개월에 접어들었다. 후일에 나는 바리스타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커피는 분명 우리에게 열정을 선물로 줬다.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해 주었고, 같은 팀이 아니었지만 정말 훌륭한 팀을 지지 하기도 했다. '나는 할 수 있었고 당신도 분명 할 수 있을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면 당신도 정신장애우를 돕는 사람이 될거예요. 우리 들은 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들도 그들처럼 기쁨, 슬픔을 알아 요. 우리도 가슴이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지지 해야해요. 파이팅'

### 김태균

바리스타도 참 매력적인 직업이며 일반인들 못지 않는 실력과 애정을 겸비한 우리 프롤로그 가족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우리들의 생각이 가장 큰 장애일꺼 라는 생각에 반성하고 늘 응원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혜정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함께하는 회원들이 더 연습에 적극적이었으며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였다. 대회 참가를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나눔과행복병원

## 후원자 소개 및 후원안내



###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을 후원해 주신 분들

고선자, 김광현, 김미영, 김민지, 김윤숙, 김일위, 김지은, 김추자, 박정현, 서명훈, 서은경, 선우성, 신형철, 안성주, 안연주, 안와주, 유영선, 이미경, 이성근, 이재훈, 정종국, 정혜선, 추성욱(가나다순)  
후원해 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후원 안내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의 후원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용 되며  
사회복지법인내 사업단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 집니다.

- 후원금액 1구좌 10,000원(1구좌 이상가능)
- 후원계좌

|      |                        |              |
|------|------------------------|--------------|
| 부산은행 | 241- 01- 001801- 7     |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
| 하나은행 | 319 - 910003 - 41104   |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
| 농협   | 317 - 0002 - 9645 - 81 |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

- 후원문의 박경덕 ☎ 051) 507-8008
- 2010년 하반기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후원금 결산

(단위: 원)

| 세 입       |           | 세 출   |           |
|-----------|-----------|-------|-----------|
| 총 액       | 8,218,565 | 총 액   | 4,607,840 |
| 후원금<br>수입 | 8,218,565 | 사무비   | 45,500    |
|           |           | 사업비   | 755,500   |
|           |           | 시설전출금 | 3,806,840 |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이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자 사회복지귀시설 위캔클럽에 후원을 해 주신 분들

강정한, 곽혜정, 김경숙, 김민아, 김정선, 마상록, 마태인, 박경덕, 박경희, 박문규, 신상보, 신지원, 신희원, 유순옥, 이미경, 이종태, 최규호, 최미옥, 한경희, 한영희, 허옥임, (가나다순)  
후원해 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액 1구좌 5,000원(1구좌 이상가능)
- 후원계좌

부산은행 323-01-001171-1 위캔클럽

- 후원문의 김정선 ☎ 051)507-8008

## <Mark Damisch 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을 위한 나눔과행복 음악회> 의 후원모금활동

Mark Damisch는 미국 시카고 출신 피아니스트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2011년 8월 한국방문과 함께 부산에서 하루를 머물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의미를 담아 나눔과행복 병원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1년 8월 14일 일요일 저녁 7시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나눔과행복병원, 주한 미국대사관
- 주관 : 나눔과행복병원,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 후원 : 부산광역시

※ Sponser가 되시면 팜플릿에 게재되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10일까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문의 : 나눔과행복병원 재활팀장 박경덕 ☎ 051)507-8008

영수증 발급확인 : 김정선 ☎ 051)507-8008



## ● 2010년 하반기 위캔클럽 후원금 결산

(단위:원)

| 세 입    |           | 세 출 |        |
|--------|-----------|-----|--------|
| 총 액    | 1,171,200 | 총 액 | 92,120 |
| 후원금 수입 | 1,171,200 | 사무비 | 33,630 |
|        |           | 사업비 | 58,490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물품, 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사용처는 위캔클럽 소식지를 통해 공개되며 후원 현황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및 동래구청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 정신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장을 제공받습니다.  
취업관련 담당 : 위캔클럽 사무국장 곽혜정 ☎ 051)507-8008

## ●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wecanclub.do>

네이버에서 해피빈을 클릭하세요. '콩'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 아이템으로 콩 1개는 100원의 가치를 냅니다. 한 번도 기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해피빈에서 주는 콩을 받아 기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해피빈 콩 사용하는 방법

- ① 네이버 검색창에 위캔클럽 검색하기

위캔클럽

검색

- ② 검색결과 '사회복지시설 위캔클럽 해피로그' 홈페이지 링크 클릭

- ③ 홈페이지에서 '콩' 사용하기

\*위캔클럽에 기부해 주신 콩은 정신장애인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 나눔과행복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탁구레슨 : 명주문, 한문희 선생님

탁구자원봉사 : 이정희, 김순명, 류필정, 박경자, 박길자, 박희경, 우정애, 정혜영, 황명순 선생님

낮병원 미술프로그램 : 이기만 선생님

합창 : 권문자, 박이자, 태홍자, 한문희 선생님

병동 요가프로그램 : 김미자 선생님

이미용봉사 : 최헤어커커

병동 미술집단요법 : 이은주, 조순옥, 허은주, 함용미, 주동해, 강혜숙, 김영아, 최인숙

낮병원 일어교실 : 신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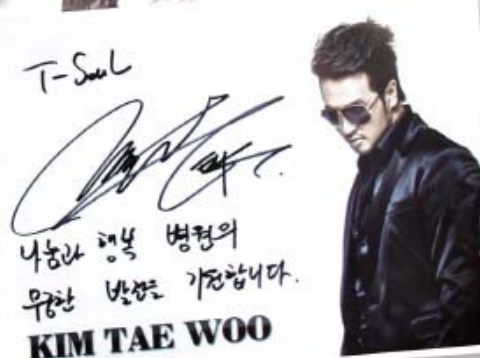
프로그램 자원봉사에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 드립니다.

## 가수 김태우씨 나눔과행복 방문

2011년 5월 22일 가수 김태우씨가 나눔과행복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김태우씨는 나눔과행복이 추구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치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의미에 대하여 공유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프롤로그에서 프롤로그 직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프롤로그 직원들과 그 자리에 참여한 팬들을 위한 사인회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bc 찾아라 그곳



통합검색 나눔과행복병원

SEARCH >

MBC 홈페이지(<http://findtv.imbc.com>)

“찾아라 그곳” 메뉴에서  
“나눔과행복병원”을 검색하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모임」

홍보팀 / 이정은



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와 용인정신병원 WHO 협력기관에서 주관하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부산 경남지역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Family Link)'

- 전문가 강의 중심의 가족교육이 아닌 만성정신질환자의 가족 중에서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가족 교육 강사를 육성, 정신 질환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가족에게 환자의 회복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생활을 위한 지침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실천대상 :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
- 교육일정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30 ~ 16:00  
\*가족교육 후 16:00~17:00까지는 율타리회 모임(가족모임)이 있습니다.
- 교육장소 : 나눔과행복병원 2층 시청각 교육실
- 수료요건 : 10과 중 7과 이상 수료한 가족 회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며, 기초과정 수료 후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과정 수료 후 부산지역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중앙심화 과정을 수료하면 가족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나눔과행복병원 율타리회(가족모임 안내) : 율타리를 통해 월 1회 가족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세요.  
(문의 : 율타리회장 윤광일 ☎051-633-7116)

### ● 알코올 가족교육

- 알코올의존 치료는 만성적인 중독에서 벗어나 단주 뿐 아니라 건강한 삶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회복 과정에 가족의 이해를 돕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실천대상 :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교육일정 : 매월 둘째 토요일 14:00
- 교육장소 : 나눔과행복병원 2층 시청각 교육실
- 알라넌(알코올 가족모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15:00 나눔과행복병원 2층에서 열립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5월22일, 가수 김태우씨 나눔과행복 방문 재활치료의 의미 공유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동참

## 나눔과행복병원 낮병원 소식지 통권 3호

**나눔과행복**  
sharing and happiness

**발행처** 나눔과행복병원,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발행인** 서영수  
**편집인** 박경덕  
**편집위원** 김완욱, 김정선, 이미경, 이정은  
**디자인** 이명희, 정송이, 방성성  
**인쇄** 세영애드  
051-636-1660  
**발행일** 2011년 7월

**나눔과행복병원**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339-1번지  
**전화** 051-507-7011  
**팩스** 051-507-6429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위캔클럽**  
부산 동래구 온천 3동 1339-1번지 2층  
**전화** 051-507-8008  
**팩스** 051-507-8078

**홈페이지**  
www.shmh.co.kr



## [요일별 진료시간]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
| 오전진료<br>09:30~12:30 | 하태민 | 서영수 | 정성수 | 서영수 | 하태민 | 서영수<br>하태민<br>정성수 |
| 오후진료<br>13:30~17:30 | 정성수 | 하태민 | 하태민 | 정성수 | 정성수 |                   |

## 통합재활치료중심 나눔과행복병원

**지하철** | 지하철 미남역 5번 출구  
**자가용** | 미남교차로에서 사직동 방향 30M 전방  
**버스** | 44, 50, 57, 80, 111, 131, 189, 210번  
반도스카이(미남지하철역) 하차

607-839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1339-1번지

**TEL. 051-507-7011**  
**지하철 3호선 미남역 5번 출구**

